

후회인가? 회개인가? (2)

이 정엽 목사
(뉴비전교회/214-534-7141)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전환이다. 그래서 뉘우침이 아닌 회개가 되려면 다윗의 회개처럼 그가 지은 죄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고 고백하였다. 사실 그 당시 다윗 정도의 권세를 가진 왕이 남의 아내를 빼앗는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서야 자기의 죄를 인정할 정도로, 다윗이 그 일을 죄인 줄도 모르고 행했다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지적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용납될 수 있는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판단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신 것은 나보고 회개하라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이것이 뉘우침이 아닌 다윗의 회개이었다.

그런데 유념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마음과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의 회개이다. 베드로가 스스로 잘 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회개케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다. 여기 “기도하였노니”는 현재완료형으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해왔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나를 부인할 때에도 너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여 돌이키도록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눅 22:60-62)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이유는 닭 우는 소리 때문이 아니었다.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때마침 닭을 울게 만드셨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돌려 베드로에게로 향하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보셨다. 이 때의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교만과 호언장담을 비웃는 차가운 눈초리가 아니었다. 베드로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눈길만이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회개와 회복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의 눈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을 하였던 것이다.

믿음이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내가 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는 장담이 아니다. 한 때의 신앙고백으로 칭찬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도 아니며, 한 때 받은 은혜로 평생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호언장담도 아니고, 누가 크냐의 싸움도 아니며,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항복이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회개도 내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지금도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며, 깨우쳐주시고, 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분의 열심의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뉘우침으로 끝내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다.